자비광명으로 코로나 극복을…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점등식 및 법요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연등이 불을 밝혔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태화강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울산종단연합회는 장엄등의 환한 불빛으로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전했다. 올해 태화강 연등축제의 제등행진과 체험, 시민축하공연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됐으며, 비대면 프로그램과 전시전 등이 진행됐다. 점등식을 시작으로 영상탑과 장엄등, 울산 반구대 암각화등, 고래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등이 시민을 반겼고 사진으로 보는 울산 연등축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삼보일배와 거리행진, 미얀마 평화기원 사진전 등 평화기원 행사도 진행됐다.

점등식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 봉행위원장 대활 스님, 덕진 스님, 보화 스님, 혜진 스님, 혜원 스님, 혜안 스님 등 지역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이병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와 우리 지역, 국가와 인류에 행복을 전하자"며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당부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5월 14일 창원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고문 흥교 스님과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 원행 스님, 도홍 스님, 도문 스님, 월봉 스님 등 지역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 박완수, 윤한홍 국회위원,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메옴 미얀마 경남교민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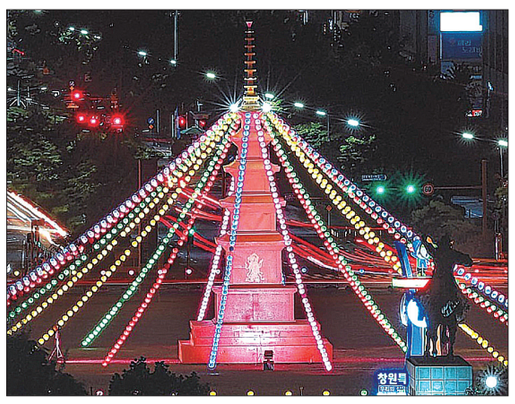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이번 법요식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창원불자들은 쿠데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자비성금 1000만원을 미얀마 경남교민회 회원 2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회장 정인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세계인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부처님 가피와 방역수칙 준수로 반드시 극복 치유될 것을 확신한다"며 "특히 불교국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선량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종식을 위해 창원지역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A29면에 계속



울산 종단연합회 봉축장엄등.



창원시청 앞 광장 봉축탑.


밀양불교사암연합회 봉축축제.


울산불교환경연대는 5월 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앞에서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미얀마 민주화 기원 오체투지 진행

울산불교환경연대, 5월 9일 미얀마 군부 규탄

"미얀마 평화를 기원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합시다."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며 죽어 가는 생명을 애도하는 간절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5월 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앞에서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미얀마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공병도 성공회 신부는 "절을 하다 보니 발아래 개미가 보였다.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비심이 이것이구나를 느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삼보일배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평화기원 기도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동했다"고 말했다.

천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살아 있는 것들은 모두가 안락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준비했다"며 "삼보일배가 진행된 날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98일째 되는 날이다. 현재 770여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4700여 명이 구속되었다. 또 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국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스님은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삼보일배가 국제사회와 미얀마에 울림이 돼 민주화의 꽃이 피어나길 염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울산=하성미 기자

제3회 부산불교대상, '김수현 BTN부산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 11일 선정
5월 16일 송상현광장서 시상

'제3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로 김수현〈사진〉 BTN 불교TV부산지사장이 선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부산불교대상의 수상자가 5월 11일 발표됐다. 대상은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 최우수상은 범어사 금강암 장학회, 우수상은 강미자 금정총림포교사회 회장, 삼광사 봉사회,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은 영상포교와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으로 취임 후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 정책개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김 부산지사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법륜회 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시상식은 5월 16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서 열린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서 진행됐으며,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부상으로 상패가 수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축 맞아 밀양소방관 · 경찰관 격려

밀양사암聯, 5월 7일 위문품 전달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5월 7일 밀양소방서와 밀양경찰서를 방문해 봉축위문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위문품은 떡과 과일, 빵 등 간식 500인분이다. 밀양소방서는 스님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소방차 및 특수 소방차량, 구급차 등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장 진각 스님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사찰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등산객 및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라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손현호 밀양소방서장은 "사찰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밀양경찰서에도 봉축위문품을 전달하고 경승 위촉식을 진행했다.

경승실장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표충사)이 위촉 됐다.

밀양=하성미 기자

국제붓다자비 봉사단 봉축 자비물품 전달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총재 목탁)은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독거어르신 및 지체장애자들에게 생필품 및 간장과 고추장 등 60상자를 비롯한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물품은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총재 목탁 스님과 해탈심 의전원장, 보현수 직전회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기도를 통해 모연된 것들로, 청정원 후원이 더해졌다.

봉사단은 매년 두차례에 걸쳐 서광사 복지원을 비롯한 기관에 자비물품을 전달해왔다. 4월 16일과 4월 23일 등에는 해외 저개발 국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2700만원 상당의 열소독 기구와 마스크 5만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3차에 걸쳐 전달된 자비물품 총액은 8000만원 상당이다.

총재 목탁 스님은 "지속적인 자비보시행으로 세계일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안성 망이산성 연등사
주지 도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장
동문회 사무처 회장 주석사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
전화 031)674-5765 / 팩스 031)674-5769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기쁨정사
주지 지인
사부대중일동
부처님땅 한평불사 108만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전화 031)974-8550